

‘식민지기 조선인 여성작가’ 최정희의 문학과 전쟁동원

— 여성성과 전쟁동원 논리 결합양상을 중심으로 —

김 효 순*

uzzanzi@yahoo.co.kr

〈 目 次 〉

- | | |
|------------------------------|---------------------|
| 1. 들어가며 | 4. 여성작가로서의 최정희의 문학 |
| 2. 1940년대 일제의 동원정책과
여성지식인 | 5. 친일문학으로서의 최정희의 문학 |
| 3. 조선인 여성작가의 친일문학의 방법 | 6. 결론 |

Key Words : 崔貞熙(Choi Jeong-Hee), 女性性(Femininity), 戰爭協力(War Cooperation), 女性解放(Women's liberation), 植民地(Colony)

1. 들어가며

식민지시기 일본어로 작품활동을 했던 주요 여성작가에는 장덕조(1914~2003), 최정희(1906~1990), 임순득(1915~??)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여성 작가, 혹은 지식인의 일본어 문학은 최근 활발한 연구대상이 되고 있다. 논의의 주된 흐름은 젠더비평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여성해방에 대한 환상과 기대로 전쟁에 협력했다가 전쟁이 끝난 후에는 다시 배반을 당했다는 논리²⁾에

* 고려대학교 일본연구센터 HK연구교수.

1) 早川紀代 『植民地と戦争責任—戦争・暴力と女性3』(吉川弘文館, 2005), 鈴木優子 『フェミニズムと戦争』(マルジュ社, 1986), 김연숙 「식민지 근대소설에 나타난 母性談論 연구」(『어문연구』 제32권 제2호, 2004년 여름) 등.

기대에 전개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선옥은 ‘논설이나 작품을 보면 국가의 성원으로 호명된 여성들이 남성과 동등하게 신민으로서의 자격과 공적 영역으로 진출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새로운 여성해방의 계기라고 파악하고 있다.(중략)논리적 결합의 과정을 거쳐 국가주의에 필요한 여성을 만들어내는 일이 여성지식인들의 친일논설과 작품이다’³⁾라고 하며, 친일 여성작가나 지식인들이 여성해방에 대한 기대로 전쟁에 협력을 했지만 결국 여성해방은 성취하지 못 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상경은 그러한 논리에 근거하여, 1940년대 최정희의 작품에서 고립된 여성성의 추구가 어떻게 역사적인 맥락을 잃게 되는가를 분석⁴⁾하고 있다. 즉 여성지식인의 친일논설과 소설의 핵심적인 논리는 여성의 공적 활동이나 모성의 보호에 대한 기대에서 비롯된다고 전제한 후, 임순득과 최정희의 친일문학을 비교하며 임순득을 문학적 상징과 암유 등으로 저항을 실천한 작가로 평가하고 최정희를 성과 민족, 계급의 복합적인 관계에 대한 고려 없이 고립된 여성성만을 추구했던 작가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김복순이 최정희의 문학은 ‘젠더 그리고 계급-민족-국가’⁵⁾등의 범주 등에서 다양하게 읽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듯이, 우리가 여성 작가의 친일문학이라고 했을 때는 여성해방의 문제와 민족해방의 문제 모두를 놓고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정희는 ‘해방전 여류문학의 현역은 최정희 씨 한 사람 뿐이었다’⁶⁾, ‘최정희는 근대 여성문학 형성기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작가라는 점에서 최정희 문학의 여성성 문제는 그 자체로 한국문학에서 통용되는 ‘여성성’이라는 개념의 성격과 의미를 추론해 볼 수 있는 준거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⁷⁾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관점에

2) 이 점에 대해 早川紀代는 ‘이들 진보적 여성들은 여성의 노동력을 배척한 남성사회에 대해 투쟁해왔는데, 전쟁과 함께 시작된 여성노동의 필요성을 보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을 상황개선의 기회라고 믿은 것이다(早川紀代 『植民地と戦争責任—戦争・暴力と女性』 吉川弘文館, 2005, p.91)고 하고 있다.

3) 이선옥 「여성해방의 기대와 전쟁동원의 논리-여성의 친일작품과 논설-」 (『친일문학의 내적 논리』 역락, 2003.12), p.240.

4) 이상경 「식민지에서의 여성과 민족의 문제」 (실천문학, 2003. 봄, 80), pp.79-81 참조.

5) 김복순 「‘범주 우선성’의 문제와 최정희의 식민지 시기 소설」 (상허학보, Vol.-NaN23, 2008), p.258.

6) 김동리 「여류작가의 회고와 전망」 (『문화』, 1947), p.47.

서 보면 최정희 문학은 여성작가라는 측면에서 여성성 인식이나, 여성의 해방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와 식민지 조선의 작가라는 측면에서 민족 해방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최정희 문학의 여성성의 개념을 살펴보고 여성성과 여성해방의 문제가 전쟁동원의 논리와 어떻게 결합, 혹은 경합을 벌이고 있는지 그 양상을 당시 일제가 취한 여성동원정책과 다른 여성친일작가들의 작품도 함께 조망하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2. 1940년대 일제의 동원정책과 여성지식인

제국주의는 남성이 생산수단, 권력, 성 등을 소유하고 여성(어머니, 아내, 딸)을 통제 관리하는 가부장제에 기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쟁시 ‘전투원=남성, 비전투원=여성이라는 사회적 역할 분담은 많은 문화적 이미지와 동시에 성차 이미지의 전형을 산출하고 있다. 전시체제는 한편으로는 인적 자원 고갈에 고민하며 여성의 노동력을 모든 면에서 필요로 하지만, 한편으로는 남성의 영역으로 여성이 월경하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체제는 항상 남성성과 여성성을 강제적으로 조작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여성이 가정에만 머물러있을 수 없는 위기, 즉 사회에 여성을 동원할 필요가 있을 때는 지배층은 교묘하게 그 경계의 벽을 일부 연다. 그리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는 바로 닫아버린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정도 한계에 달하면 여성에게 그 접근을 허용하며, 제2차 세계대전은 바로 그 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전체주의’의 ‘호명 및 동원 메커니즘’⁸⁾은 전황에 따라, 민족에 따라, 계층에 따라 달랐다. 예를 들어 도조 히데키(東條英機)의 다음 언급을 보자.

현재는 여자를 징용할 생각은 전혀 없다. 미영이 여자를 징용한다고 해서 그것

7) 심진경 「최정희 문학의 여성성-여성작가로 산다는 것-」 (한국근대문학연구, Vol.7 No.1, 2006), p.96.

8) 방민호, 「일제말기 문학인들의 대일협력 유형과 의미」 (『한국현대문학연구』, Vol.22, 2007), p.241.

을 흉내낸다면, 중요한 가족제도는 어떻게 되겠는가, 일본국가의 명분상으로 봐도 여자는 징용할 수 없다.⁹⁾

전황의 격화와 더불어 병력부족에 시달리면서도 가족제도의 보전을 위해 여자를 징용할 수 없다는 통치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서 알 수 있듯이, 서구와 달리 일본에서는 여성은 끝까지 보조적 수단이었다. 이와 같은 전쟁 동원 정책에 드러나는 성차는 민족의 문제와 얽혀 훨씬 더 심했고 그만큼 복잡한 양상을 띤다. 일제의 총독 미나미 지로(南次郎)는 1936년 8월 5일 취임 후 ‘내선융화’ 대신 ‘내선일체’를 강조하기 시작했고, 1937년 7월 7일 중일전쟁에 돌입하여 조선은 병참기지화되면서 노동력과 병력 동원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하여 1938년 2월 26일 육군특별지원병령(4월 3일 시행)과 제3차 조선교육령(1938년 3월 4일 공포, 4월 1일 시행)이 시행되고 1938년 5월 마침내 국가총동원법이 발효되자 조선 사회는 폐쇄적이고 획일적인 사회로 새롭게 재편되어야 했다. 이러한 위기의식 속에서 총독부 권력은 한국인의 ‘황민화(皇民化)’를 촉진하기 위해 1939년 11월 제령 제19호로 ‘조선민사령(朝鮮民事令)’을 개정하여 한민족 고유의 성명제를 폐지하고 일본식 씨명제(氏名制)를 강요하는 창씨개명을 실시하였으며, 1941년 12월 태평양전쟁 발발 후인 1942년 5월에는 조선인 징병제를 발표한다. 그리고 총독부는 개전 1주년을 맞아 국민운동에 대한 통제의 강화를 위해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을 결성하도록 한다. 이는 총독부 권력과 연맹과 조선인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전쟁 동원을 위한 일원적 체제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일제의 식민 정책에 연동하여, 식민지 조선에서 여성들은 군국의 어머니로서 인적 자원(병사)을 재생산하고 보조 생산자로서 군수물자 생산, 농업 활동에 종사할 것을 강요받게 된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서는 우에노 지즈코(上野千鶴子)가 ‘전쟁은 남성적 제활동중에서도 가장 성스러운 행위, 여성의 진출이 마지막에 와야 할 남성의 성역이다. 그런데 남성이 전장에 나감으로써 “총후”에서는 평시의 성분업 체제가 무너진다.(중략) 양 대전을 통해 참전제국은 (중략) 남성적 직역으로 진출한다고 하는 전쟁협력에 이르기까지

9) 東条英機、第三臨時衆議院予算總會(朝日新聞, 1943.10.28)

여성을 전통적 가정영역에서 끌어내고자 호소해야 했다¹⁰⁾라고 지적하고 있는 데에서도 잘 알 수 있다. 그 결과 여성들은 사회 진출이 인정되고, 가정과 사회, 국가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이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된다. 그러나 국가는 이를 이용할 뿐, 전시하의 여성동원은 여성 지위 향상에 아무 작용도 하지 못 했다고 할 수 있다.¹¹⁾

그런데 그러한 기대와 배반의 양상은 젠더의 문제를 민족의 문제로 치환해도 그대로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조선 작가들은 전쟁에 협력하고 참가함으로써 식민 본국인 일본 내지인과 동화를 추구하며 친일행각을 벌였지만, 끝내 배제당하고 차별당하는 존재였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그러한 조선 작가들의 친일행각과 기대, 배반 양상은 여성 친일작가들의 경우에는 민족과 성차의 문제가 교차하며 일본여성들의 문제보다 혹은 조선 작가들보다 더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피식민 민족의 여성으로서 식민 본국인 일본인과의 동화 문제가 절실하였던 식민지 조선의 여성 작가들에게 여성해방이라는 기제가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였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3. 조선인 여성작가의 친일문학의 방법

위에서도 검토해 왔듯이 전시총동원체제가 확립됨에 따라 조선에서도 여성들이 동원되기 시작했다. 즉 1938년부터 총동원체제 하에서 전시 하 조선여성들은 노동자로서의 조선 내외로 동원되었고, 또한 조선내외로의 남성노동 동원후의 조선 내 농업노동력으로서도 동원되었다. 또한 물자통제와 쌀, 물자 공출 강화에 따라 식량난을 비롯 가정생활은 곤궁해져 갔다. 특히 1941년

10) 우에도 지즈코 『내셔널리즘과 젠더』 이선이 옮김(박종철출판사, 1999), p.47.

11) 이와 같이 여성의 사회진출 인정을 여성해방의 기회로 여겨 전쟁에 협력하지만, 결국 ‘국가에 동원된 후 국가로부터 버림받은 여성’들에 관한 문제는 일본여성들의 경우에는 최근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카세타니 토모오(谷智雄) 「在韓日本人妻의 形成과 生活適應에 關한 研究 : 生活史研究를 中心으로」(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석사, 1994)나 다바타 가이(田端かや), 「식민지 조선에서 살았던 일본 여성들의 삶과 식민주의 경험에 관한 연구」(이화여대 여성학과, 석사, 1996)의 연구가 그러한 경우라 할 수 있다.

12월 태평양전쟁이 발발하고, 1942년 5월 징병제가 실시된 후에는 총후여성 즉 ‘군국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강요되었고, 전시협력, 애국반활동 등 생활 전반에 걸쳐 통제와 억압을 받게 된다.¹²⁾ 그러나 정책이나 법은 국민을 물리적으로 움직이지만, 내면으로부터는 움직일 수는 없다. 내면으로부터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문화를 동원해야 한다. 담론을 만들어내는 인간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여성들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여성 자신에 의한 담론을 생산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일제는 지적으로 사회성을 가진 여성지식인, 작가를 최대한 활용했다. 즉 이 시기 여성 작가들은 피식민 민족의 여성 지식인으로서 담론 생산에 동원되었고 문화생산에 동원되어, 수많은 연설에 참가하였고 그러한 논리를 문학작품이라는 문화로 내면화시켜 유포시키는데 앞장서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 여성작가들의 친일소설의 논리는 전쟁의 격화에 따른 총동원체제 하에서의 총후여성의 역할을 선전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즉 내지와 식민지 국민의 의무와 권리가 모두 동일하다는 내지연장주의가 강조¹³⁾되면서 여성작가의 친일소설 역시 일본 제국이 취한 정책 즉 첫째, 군국의 어머니로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을 천직으로 하며 둘째, 근검절약과 저축을 통해 국가의 경제를 부양하고, 전시 생산력 보충을 위한 노동력으로 참여하게 하는 정책을 선전하는 목적으로 크게 후방소설이라는 틀 안에서 창작되었다. 후방소설이란 ‘전장에 나가 있는 병사들을 위하여 나라에 남아 있는 (후방) 자는 모든 어려움을 참아내야 한다는 것’, ‘그러한 생활상을 그린 것, 혹은 그러한 생활을 추진하기 위해 씌여진’¹⁴⁾ 소설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후방소설은 애국반의 활동이나 사람들의 일상생활 모습에 시국색을 다소 가미한 것, 지원병을 내게 된 가정을 그리거나 지원병이 되라고 결의를 촉구하는 이른바 ‘군국의 어머니’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여성작가의 후방소설에서 여성해방 추구하고 민족해방의 문제는 전쟁동원 이데올로기와 어떠한 양상으로 결합되고 있을까. 남성

12) 樋口雄一 「戰時下朝鮮における女性動員—1942~1945を中心に—」(西村汎子, 早川紀代 『植民地と戦争責任』 吉川弘文館, 2005) 참조.

13) 호사카 유지 『일본제국주의의 민족동화정책 분석』(제이앤씨, 2002).p.216.

14) 이선옥 「여성해방의 기대와 전쟁동원의 논리-여성의 친일작품과 논설-」(『친일문학의 내적 논리』 역락, 2003.12).p.256.

작가에 의해 창작된 후방소설에서 타자화되었던 계몽되어야 할 여성성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을까. 이들 문제를 식민지 시기 대표적 여성작가 임순득, 장덕조, 최정희를 중심으로 검토해 보겠다.

(1) 여성성의 배제와 민족 해방의 지향

이 시기 임순득의 대표작으로 거론되는 작품에는 「대모」(1942.10), 「가을의 선물(秋の贈り物)」(1942.12), 「달밤의 대화(月夜の語り)」(1943.2)가 있다. 이 중 「대모」는 원래 제명이 「名付親」인 것에도 나타나고 있듯이, 화자 ‘나’가 사촌동생의 태어날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이야기이다. 여기서 ‘나’는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이끈 ‘모세’와 절개를 지킨 ‘굴원(屈原)’의 글자를 따서 딸을 낳으면 ‘蕙媛’, 아들을 낳으면 ‘世原’이라 이름을 지으라 한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비록 작품 안에서 창씨개명에 대해서는 한 줄도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그리고 일본인이나 일본이름을 가진 사람도 전혀 등장하지 않지만, 창씨개명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던 시기에 작명을 소재로 한 작품을 발표, 이름이 한 인간의 정체성의 표명일 수 있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로써 일제가 동원정책으로 취한 창씨개명과 민족 존립의 문제를 환유적으로 다룬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이상경은 이 작품을 일제의 창씨개명을 비롯한 동원정책에 대해 비협력의 저항을 실천한 작품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작품 안에서는 여성성의 추구나 해방의 문제는 부수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물론 이 작품을 “동양/서양’이나, ‘남성/여성’의 문제를 떠나 가치관이 동일한 남성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그러한 남성을 만나면, 진정한 동반자로 하여 민족해방과 함께 완전한 여성해방도 이루어 갈 것을 꿈꾼다¹⁵⁾”라고 하며 여성해방을 함께 다룬 작품이라고 해석하는 논도 있다. 그러나, 이상경이 「식민지에서 여성해방은 민족해방이란 대의명분에 매몰되거나 부차적인 것일 수 없지만, 민족해방과 분리되어 얻어질 수도 없다¹⁶⁾라

15) 박경수·김순진, 「임순득, ‘창씨개명’과 「名付親」」(『일본어문학』 제41집, 2009), p.327.

16) 이상경(2004), 「1930년대 신여성과 여성작가의 계보연구」(앞의 논문, 2004), pp.261~265.

고 지적하고 있듯이 이 작품의 주된 문제의식은 창씨개명과 민족존립문제가 다. 이러한 양상은 ‘장덕조, 이선희, 최정희, 모윤숙의 작품이 지나치게 여성적, 가정적, 모성적, 정신적 토픽에만 치우쳐 있다고 비판’¹⁷⁾하며 작품 안에서 여성성을 의식적으로 배제하고자 했던 임순득의 작가정신의 표현일 지도 모르겠다. 따라서 이 시기 임순득의 일본어 작품 「달밤의 대화」에서는 주인공 순희가 ‘석녀형’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여성성이 배제되거나 부수적인 것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 만큼 이 시기의 임순득의 작가 정신은 민족해방의 문제를 우선시하고 여성성은 배제되거나 부수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2) 여성성의 부정과 협력의 당위성 주장

다음으로는 장덕조의 「출발하는 날」(매일신보, 1943. 3.7-10)과 「행로(行路)」(半島作家短篇集, 조선도서출판, 1944. 5.25, 일어)를 살펴보겠다.

「출발하는 날」은 일본인 니시다(西田) 목사의 연설과 편지를 통해 개인주의적인 자신을 반성, 모성애를 자각한 새로운 여성으로 태어나는 여성의 이야기이다. 니시다 목사는 진주만 기습에서 죽은 9명의 특공대가 보여준 멸사봉공의 정신을 계승하고 실천하는 인물이다. 그는 ‘우리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일해’ 온 사람이고, ‘우리들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아직 젊은 내지인 목사’이다. 동시에 그는 ‘군인이요, 열렬한 애국자’였고, ‘가장 정의를 믿는 사람이요, 의(義)를 위해서는 조금도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다. 이러한 목사의 연설에 대해 화자인 ‘나’는 ‘눈물겨움기까지 경건한 마음’으로 감격을 하며, ‘나 혼자만의 욕심, 남이야 어떻게 되든지 나만이 더 먹고 더 잘살겠다던 마음’을 반성한다. 즉 멸사봉공을 몸소 실천하는 니시다 목사의 연설에 자신의 개인주의에 대한 반성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기차에 치일 뻔한 대어섯 살된 아이를 구해 끌어안고는’ 모성애를 자각한다. 이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개인주의적 자신을 반성하고 모성애를 자각’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반성과 모성애의 자각에 내적인 필연성은 그려지지 않는다. 단순히 한 목사의 연설에 감동하여 전체의 의를 실현해야

17) 임순득, 「불효기에 처한 조선여성작가론」(『여성』, 1940.9) 참조.

한다고 하는 당위성을 주장할 뿐, 심리 변화의 내적 필연성은 설명되고 있지 않다.

「행로」는 여학교 동창 김 순덕, 윤 애라가 모여 군국의 어머니가 되자고 결의하고 촉구하는 내용이다. 순덕은 어느 날 기차 안에서 17년 전의 여학교 친구 애라를 만난다. 순덕은 여학교를 나오자마자 곧 결혼하여 7아이의 엄마가 되지만 윤 애라는 그런 순덕을 경멸하며 ‘아이를 장애물’로 여기고 ‘열렬한 여권론과 결혼문제에 대한 매우 자유로운 견해’를 발표하는 여류문인이 되었다. 그런 애라가 지금에 와서는 ‘여자가 대단해졌다 한들 얼마나 대단해지겠어요. 가정을 잘 지키고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우는 것, 그게 여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인 것을. 난 난 우둔했어’ 라고 하며 지난 날의 자신을 반성하며 멸사봉공의 정신으로 군국의 어머니가 되자고 결심한다. 그리고 지난 날의 자신의 행적에 대해, ‘나는 지금까지 완전히 내 자신만을 생각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어. 남의 일에 대해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 항상 나만 좋으면 그것으로 만족했지. 개인주의이자 자유주의였던 거지. 미영(米英)사상이었던 것이지’라고 반성한다. 즉 지난 날의 자신이 추구했던 여권, 자유결혼 사상 등은 미국, 영국의 서양사상에 물들었던 탓이고 그것은 부정해야 할 개인주의이자 자유주의였다고 반성하는 것이다. 당시 매우 개인적이고 사적인 문제, 즉 결혼, 연애, 임신, 출산, 육아, 교육, 교양, 취미, 복장, 머리모양, 식사 등 모든 생활에 이르기까지 콘트롤하며 모성을 강조했고, 엄마가 아닌 여자는 근대적인 에고이스트로 규정, 비국민인 여자에 대한 잠재적 공격을 하고 있던 일제의 동원논리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반성 후에 국가를 위한 동원의 논리에 모성이데올로기를 적용시킨다. 그것은 병사가 된 그녀의 아들의 결심에 다음과 같이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어머니! 저의 생명은 절대 저 한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 나라에 몸을 바쳐, 一死報國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만약 제가 죽는다 하더라도 어머니는 조금도 슬퍼하시면 안 됩니다. 기쁘게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십시오!¹⁸⁾

18) 장덕조, 「行路」(大村益夫『近代朝鮮文學日本語作品集, 1939-1945, 創作篇』(綠蔭書房, 2001), p.103.

이상과 같이 「행로」에서는 전쟁을 위해 균질화된 황국신민의 정체성을 형성해내기 위해 여성 범주의 재규정이 필요했고, 그러기 위해 여권론이라든가 자유연애 사상 등의 여성해방 이데올로기를 서구의 개인주의, 자유주의의 산물로서 부정한 후 동원의 논리를 전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여성성이 동원의 논리를 위해 부정되는 양상은 시의 경우 더 노골적이고 극단적으로 드러난다.

부인근로대 작업장으로/군복을 지으러 나온 여인들/머리에 흰 수건 아미 숙이고/
바쁘게 나르는 흰 손길은 나비인가/나라를 생각하는 누나와 어머니의 아름다운
정성은/오늘도 산만한 군복 위에 꽃으로 피었네.¹⁹⁾

남아면 군복에 총을 메고/나라를 위해 전장에 나감이 소원이려니/이 영광의 날/나
도 사나이였으면 나도 사나이였으면/ 귀한 부르심 입을 것—²⁰⁾

비단치마 모르고/연지분도 다 버린 채/ 동아의 해 언덕을 쌓으리다/온갖 꾸밈에서/
행복을 사려던 지난 날에서/풀렸습시다/벗어났습시다//우리는 새날의 딸/동방의 여
인입니다.²¹⁾

전쟁에 나간 남자들을 대신하여 공장이 비었으면 공장으로 회사가 비었으면 회사로 들어가서 일하는 것이 여성의 총후 부인의 역할로 강조되고 있던 식민지 조선에서 총후부인의 역할이 어떻게 이미지화되고 강조되고 노동력 착취 이념으로 작동되었는지 잘 보여주는 글들이다. 동방의 여인이 되기 위해서는 비단치마도, 연지분도 잊어버릴 만큼 여성성은 부정되어야 할 것으로 그려지고 있으며, 노천명의 경우는 심지어 남자가 되기를 희망하기까지 하는 것이다.

19) 노천명, 「부인 근로대」(『每日新報』 1942.3월 4일)

20) 노천명, 「님의 부르심을 받들고서」(『每日新報』 1942.8월5일)

21) 모윤숙, 「동방의 여인들」(『新時代』 1942.1), p.157.

4. 여성작가로서의 최정희의 문학

최정희는 ‘여류다운 체취를 지닌 작가’²²⁾, ‘여성의식의 순수결정체’²³⁾, ‘완벽한 여류의 전통’²⁴⁾ 등 여류 작가의 대명사로 알려져 왔다. 특히 남성적 작가로 평가받은 박화성과 대조되며 여성적 작가로 한국문학사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데뷔작 「정당한 스파이」(『삼천리』, 1931.10)를 비롯 프로 문학적 경향의 작품은 남성성의 작가로 평가받게 하기도 하지만, 1938년부터 41년 사이에 발표된 일명 ‘맥시리즈’(『지맥』 『인맥』 『천맥』) 이후부터 해방 후까지의 작품은 그를 여성성의 작가로 평가받게 한다. 1931년 10월에 데뷔해서 1935년 투옥되기 전까지 소설 10여편, 수필 14편, 평론 2편 등 활발하게 작품활동을 하던 최정희는 출옥한 직후에 「여인」(『중앙』, 1934. 12)이라는 제목의 소설을 발표하면서 다시 작품 활동을 시작하는데, 「여인」은 맥시리즈와 마찬가지로 ‘제2부인의 문제’ 같이 사회적 도덕과 인습을 벗어난 여인의 사랑을 다룬다. 남편 동수의 비참한 전락과정을 냉정하게 묘사하는 부분이나 리태성의 이중적이고 탐욕적인 모습을 알면서도 생활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몸을 의탁하는 부분에서는 냉혹한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이 잘 드러난다.²⁵⁾ 이처럼 「여인」에서부터 최정희는 여성의 현실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현실에 의해 만들어진 여성의 내면 그 자체에도 주목하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변화가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난 작품은 바로 수필 『애달픈 가을화초』(『삼천리』, 1936.6. 후에 「자화상」으로 『현대여류조선문학선집』(1938)에 재록)로, 이 시기에 최정희는 여성성의 시기 전반을 아우르는 토대를 이룬다. 이는 이 시기²⁶⁾를 시작하고 마감하는 때에 쓰여진

22) 김윤식, 『인형의식의 파멸-여성과 문학』, 『한국문학사논고』(법문사, 1973), p.246.

23) 이재선, 『한국현대소설사』(홍성사, 1979), p.47.

24) 조병무, 『탐돌이』(『범우소설문고』, 범우출판사, 1982), p.246.

25) 심진경 「최정희 문학의 여성성-여성작가로 산다는 것」(한국근대문학연구, Vol.7 No.1, 2006), p.102.

26) 이 시기에 발표된 문학이란 「흥가」(『조광』 1937.4), 「정적기」(『삼천리 문학』 1938.1), 「산제」(『동아일보』 1938.4.8~15), 「길」(『동아일보』 1938.5.24), 「곡상」(『조선일보』 1938.7.8), 「지맥」(『문장』 1939.9), 「초상」(『문장』 1939.10), 「인맥」(『문장』 1940.4), 「적야」(『문장』 1940.9), 「천맥」(『삼천리』 1941.14), 「백야기」(『춘추』 1941.7). 등을 말한다.

「홍가」(1937.4)와 「백야기」(1941. 7)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홍가」는 가족부양의 의무를 진 지식인 여성의 삶에 대한 공포와 고통을 ‘여성 특유의 섬세한 감정과 심리’²⁷⁾로 그린 작품이다. 「백야기」는 주인공이 자신의 삶을 회고하는 내용으로, 정숙한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두 번 할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의 기구한 운명과 그러한 어머니의 운명에 저항하다가 유랑극단의 배우가 되어 성이 제각각 다른 아이를 낳는 자신의 이력을 그리고 있다. 「정적기」는 일기 형식의 자전적 소설로 아이를 떠나보낸 ‘나’의 불안하고 절망적인 심리를 묘사하여, 홍가 이후 여성의 고통을 세밀하게 그려내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같이 최정희는 구습이나 인습에 얽매어 있는 여성의 심리, 사랑, 현실 등의 문제를 정면에서 다룸으로써 자신의 문학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양상은 친일문학으로 평가받고 있는 해방이전 40년대 작품 즉 「환영의 병사(幻の兵士)」(『국민총력』, 1942. 2.7.일어), 「2월 15일 밤(2月15日の夜)」(小品)(『신시대』, 1942. 4, 일어), 「여명(黎明)」(『야담』, 1942.5), 「야국초(野菊抄)」(『국민문학』, 1942.11, 일어), 「薔薇의 집」(『대동아』, 1942.7), 「징용열차(徵用列車)」(『半島之光』, 1945.2)에서도 견지되고 있다. 그렇다면 전황의 격화와 더불어 일제에 의해 실시된 각종 동원정책을 선전할 목적으로 집필된 이들 작품 안에서 최정희 문학 정신을 일관하고 있는 여성성, 혹은 여성해방의 문제는 그와 같은 동원논리와 어떤 결합양상을 띠게 되었는지 살펴보겠다.

5. 친일문학으로서의 최정희의 문학

(1) 환영의 병사: 힘·정열·진실·생명으로서의 연애추구와 전쟁협력

「환영의 병사(幻の兵士)」(『국민총력』, 1941.2.7.일어)의 주인공 김영순(金英順)은 홀어머니의 외동딸로 동경의 모여자대학 2학년까지 다니다가 건

27) 김윤식, 『인형의식의 파멸-여성과 문학』, 『한국문학사논고』(법문사, 1973), p.246.

강 때문에 휴학하고 집에 돌아와 요양 중이다. 그녀는 야마모토(山本) 이등병 등 일본인 병사들과 알게 되어 그들에게 아리랑을 가르쳐주기도 하고, 그들로부터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도 하면서 친해진다. 그녀는 ‘그들을 즐겁게 해주고 위로해 주는 일에 주저할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며 막사를 방문, 한글을 배우고 싶다는 그들의 청으로 한글 자모를 써주고 더욱 친밀해지며 낭만적 시간을 보낸다. 그러는 사이 영순은 야마모토에 대한 연애감정을 고백한다. 이에 대해 야마모토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물론 병사는 전쟁에 열중합니다. 어떻게 하면 조국을 훌륭하게 지켜낼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병사입니다. (중략) 낭만을 중세기 퇴폐적 정신의 산물이라고 비난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현대에는 낭만은 힘이고, 열정이고, 진실이며, 생명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²⁸⁾ (밑줄 인용자)

일반적으로 ‘낭만’은 민족을 위해, 아시아 민족의 해방을 위해 전쟁을 수행하는 병사입장에서는 개인주의, 자유주의의 산물로 배제되어야 할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전쟁을 수행하는 제국주의의 국민동원 과정에서 개인주의, 자유주의의 문화코드로서의 신여성이 얼마나 배제의 대상이 되었는지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그러나 야마모토는 그런 감정을 인간의 본성, 즉 자연으로 보고 그에 대한 동경을 낭만으로 긍정한다. 단 이때 낭만은 퇴폐적인 것이 아니라 힘이고 열정이고 진실이고 생명이라고 재규정된다. 이와 같이 재규정된 낭만성은 바로 일제의 동원논리인 내선일체, 대동아 성전의 논리와 바로 결합된다. 그것은 전장으로 떠난 야마모토에게서 온 편지에서 구체화된다. 편지에는 전쟁의 당위성, 내선일체의 논리, 여성의 자세 등이 자세히 기술된다.

당신이 써준 당신의 이름과 언문을 때때로 열어보고 당신을 느끼고 당신의 어머니로부터 친척, 그분들과 같은 동포인 조선인 전체를 느낌과 동시에 언문의 형태를 하고 있는 조선 가옥의 구조와 중국 가옥의 구조가 비슷하다는 것을 느끼고 중국과 조선과 일본은 신대부터 어떤 인연이 있었다고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대부터의 숙명적인 인연만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당신도 저와 같은 이념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8) 최정희, 「幻の兵士」(大村益夫 『近代朝鮮文學日本語作品集, 1939-1945, 創作篇』 3 (綠蔭書房, 2001), p.296.

신의 뜻인 동양평화를 위해 강한 여성이 되어 주십시오. 싸우기 위해 싸우는 전쟁이라면 죄가 되겠지만 평화를 위해 싸우는 전쟁이라면 신도 기뻐하실 것입니다.²⁹⁾

낭만적 연애 감정이 식민 본국 일본인과 식민지 조선인 사이의 일체감을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되고 그것이 조선, 중국, 일본 등 동양 전체의 동질감으로 확대되어 동양평화를 위한 전쟁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편지를 받은 영순은 아마모토의 전사 소식이 전해진 후에도 그의 환영을 느끼며, ‘당신이 제가 써드린 언문에서 조선 전체와 중국까지 동양 전체를 느끼신 것처럼 당신과 알게 된 이유로 저도 전쟁이 제 일처럼 느껴져 어딘가에서 병사를 만나면 당신을 만난 것처럼 기뻐하게 됩니다’라고 하며 일본과 조선, 중국의 인연이 선대부터의 깊은 것이라는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물론 이들의 연애는 결혼에는 이르지 못한다. 일본 군인이 전선에 나가서 죽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은 연애를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힌다는 점에서 일체가 내세운 정신적 차원의 내선일체, 일선동원론을 실현하고 있다. 즉 한 개인을 통해 그가 속한 문화와 공동체 전체를 느끼고 그에 융합되어간다고 하는 연애의 과정에서 두 남녀는 ‘신동아 건설을 위한 전쟁’에 대한 이념을 공유하게 되는 것이다. 내선연애의 성립에 의해 내선일체의 논리를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작품에서는 연애감정을 서구의 개인주의, 자유주의의 산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병사들을 후방에서 ‘즐겁게 하고 위로하기 위한’ 인간 본성, 자연에 대한 본능으로 긍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긍정을 통해 동원의 논리인 전쟁의 당위성, 내선일체의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2) 「장미의 집」 과 「2월 15일 밤」 :즐거움과 미의 추구와 전쟁협력

「2월 15일 밤(2月15日の夜)」(小品)(『신시대』, 1942. 4, 일어)은 아내 선주가 애국반장이 된 일로 남편 남주가 잔소리를 하지만 싱가폴 함락 소식에 감동을 하고 아내의 활동을 인정한다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과정을 좀 더 확대하여 구체화한 것이 「薔薇의 집」(『대동아』, 1942.7)이다.

29) 최정희, 「幻の兵士」(大村益夫『近代朝鮮文學日本語作品集, 1939-1945, 創作篇』3(綠蔭書房, 2001), p. 296.

조선에서는 국가총동원체제 하에서 국민총력조선연맹이 일본국내의 대정익찬회하부조직인 도나리구미(隣組)와 거의 같은 형태로 주민 전원을 애국반으로 조직하여, 동원, 헌금, 배급 등의 기초조직을 만들어 국민을 통제했다. 그리고 배급제도의 철저화에 따라 애국반활동은 강제화되었다. 애국반은 직장과 지역으로 조직, 남성은 직장에 속했기 때문에 도시지역의 애국반은 반장을 포함 여성이 많았다. 애국반은 정기적 참가를 강요하였고, 참가안 한 가정은 생활물자 배급을 끊었다. 특히 농촌에서는 남성이 노동동원으로 공백된 노동력 보충에 여성을 동원하는 방법으로 이용되었으며 공동탁아소 설치에 의해 여성을 농작업에 조직적으로 동원하였다.

위와 같은 배경 하에 「장미의 집」은 애국반장이 된 지식인 여성이 근검, 절약을 통해 국가에 봉사하는 생활여성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세(남편)와 성례(아내)는 결혼한 지 3, 4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싸운 일이 없을 만큼 사랑하는 사이이다. 그러나 처음으로 지금 영세가 성례에게 화를 낸다. 그것은 성례가 애국반에 참가하면서 밖으로 나도는 것이 못마땅하기 때문이다. 영세는 성례에게 ‘美리는 것은 씹씩하거나 건전한 것과는 반대’되는 것이라며 여성의 아름다움을 지켜 주길 요청한다. 이에 대해 성례는 ‘미’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것으로 예전엔 하늘을 멍하니 앉아서 쳐다보는 여자의 자태가 아름다운 것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자태보다는 그런 하늘을 어떻게 하면 곱게 지킬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여자가 더 아름답다고 주장한다. 즉 미적 가치를 추구한다고 하는 여성성을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 씹씩하고 건전한 것을 추구하는 미의 개념을 개발하여 협력의 논리로 발전시키고 있다. 성례가 애국반장이 되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한 씹씩하고 건전한 것이다. 반면 외모에 치중하여 백화점에서 옷을 사는데 정신이 없는 문식의 아내는 ‘타일러’야 할 대상이 되고 있다. 총동원체제하의 물자부족 상황에서 조선여자의 저항은 생활유지에 관한 행동이 많았고, 구체적으로는 물자 통제령 위반으로 체포, 암거래로 처분되는 여성이 많았다. 엄격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저항은 광범위하게 빈발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비판하기 위해 문식의 아내는 계도되어야 할 대상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여성성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하지 않는다. 이는 성례가 그림을 그리는 이유와도

상통한다. 성례가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대가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림을 그리는 것이 즐거운 작업이기 때문에 그린다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작품에서는 즐거움을 추구하고 미를 추구하고자 하는 본능, 그것이 인간성이든 여성성이든 인간으로서 여성으로서의 본능을 자각하고 있는 여성이 그려지고 있다. 그리고 난 후에 애국반장이 되어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것도 내선일체의 강조도 그러한 미를 추구하고 지키고자 하는 방법이며 본능의 확장이라는 논리로 전쟁협력 논리를 개발하고 있는 것이다.

(3) 야국초-근대적 주체로서의 여성성과 국가, 민족 담론의 결합

「야국초(野菊抄)」(『국민문학』, 1942.11, 일어)는 미혼모인 여성이 자신을 버린 옛 애인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독특한 작품이다. 유부남과의 사랑에서 미혼모가 된 화자 ‘저’가 아들과 지원병 훈련소를 전학한 후 강한 어머니로 거듭나겠다고 결심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유부남 ‘당신’은 ‘저’를 위해서라면 ‘강에 빠져도 괜찮’고 위태로운 외나무다리를 건널 때 ‘저’의 손을 잡아주었고, 그런 ‘당신’의 사랑을 믿고 ‘저’는 ‘평정’을 찾고 행복해 한다. 그러나 ‘저’의 임신 소식을 전하자 ‘어째서 주의하지 않았지?’라고 ‘책망’하며 낙태할 것을 종용한다. 이러한 ‘당신’의 태도는 ‘저’의 ‘기쁨과 희망을 무자비하게 짓밟고’ ‘지위와 명예와 인격과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미 없는’ ‘끔찍하고’ ‘무서운’ 것으로 여겨지는 배신감을 느끼게 한다. 그리고 그는 결국 부인과 아들과 함께 ‘지금보다 한층 높은 지위와 명예가 있는 자리’로 돌아간다. ‘저’는 ‘아버지 없는 자식을 낳는 괴로움, 자라나는 자식의 초라함’을 참고 견디며 ‘괴롭고 처량한 산실’에서 아이를 낳고 기른다. 아들의 이름은, ‘패배하지 않고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이기기’를 비는 마음에서 勝—이라 짓는다. 화자는 ‘탁아소’의 도움을 받으며, 아들이 무럭무럭 자라는 것을 보며 ‘인생의 실패를 반성하고, 여자로서 어머니로서 강하게 살 것을 결심’한다. 그리고 그녀는 아이에게 ‘지식보다는 인간을 요구’한다며, ‘진정한 인간, 인간미 있는 올바른 인간’을 만들고 싶다고 한다. 그리고 지원병 훈련소를 방문, ‘제국군인’이 되게 하겠다고 결심한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화자’가 여자로서 어머니로서 살기 위해 왜 강해지겠

다고 결심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그녀가 아들을 제국의 군인으로 만들고자 결심하는 원인은 국가, 민족을 위해서가 아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유부남의 제2부인으로서 살아야 하는 여성의 현실, 미혼모가 되어 아이를 오빠의 호적에 올려야만 하는 호적제도 등으로 표상되는 조선사회의 가부장적 가족 제도 하에서 배신당한 화자 자신의 생존을 위한 것이다. 물론 ‘내가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 죽어도 엄만 이제 울지 않겠지?’라는 아들의 말에 ‘엄만 이제 울지 않는단다’라고 대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인습에 순응하기보다는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고자 노력했던 여성작가들과는 달리 여기서 최정희는 아들을 개인적 성취욕망보다는 가정과 국가를 책임질 자녀양육의 의무로 전가시켰다’와 같이 자신의 아들을 사지로 내모는 자기 희생적 모성으로 해석하며 비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는 ‘실제로 희생적 어머니에 대한 讚美 내지 美化는 2차대전 당시 獨逸의 나치즘과 日本의 軍國主義가 표방하였던 帝國主義 母性論에서 대표적으로 드러난다. 女性的의 役割이란 아들을 救國의 전사로 키워 戰場에 내보냄으로써 國難 극복에 기여하는데 있음을 強調하고, 훌륭한 전사를 키워낸 어머니를 찬양함으로써 女性的의 犧牲을 사회적으로 보상해 준다는 것이다³⁰⁾와 같은 기존의 제국주의 담론의 도식적 논리에 근거한 해석이라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가 일본제국을 택하는 것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생존, 자신의 모성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의지는 다음과 같은 결말에서도 확인된다. ‘이제 저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승일을 위해 들국화를 아름다운 꽃, 강인한 꽃으로 가꾸기로 했습니다. 그게 제게 하셨던 당신의 행위에 대한 복수가 될 테니까요 그럼 안녕히’(186)라고 이 결말은 ‘남성의 구속에서 벗어나 들국화처럼 강하게, 당당하게 여성의 홀로서기를 하겠다는 의지로도 생각할 수가 있다³¹⁾는 지적도 있듯이, 가부장제의 희생물인 여성에게도 평등한 권리와 보호를 제공한다면 구습에 얽매인 조선을 버리고 과감히 일본을 택하겠다는 논리를 읽어낼 수 있다. 그 대상이 명예와 지위를 위해 자신의 가정으

30) 김연숙 「식민지 근대소설에 나타난 母性談論 연구」 (『어문연구』 제32권 제2호, 2004년 여름), p. 388.

31) 장미경·김순진 「최정희일본어소설에 나타난 ‘여성지식인’ 고찰-단편 『靜寂記』, 『地脈』, 『野菊抄』를 중심으로」 (『日本語文學』 第42輯), p.188.

로 돌아간 조선의 남성(=민족)이라면, 그녀를 미혼모로 만든 무책임한 남성(=민족) 대신에 그녀가 선택하는 새로운 대상은 그들 모자를 당당한 국가의 일원으로 받아주는 일본 제국이 되어도 상관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태도에서 자기희생은 찾아볼 수 없다. 자식을 천황의 군대에 보내는 것은 자신을 배반했던 조선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와 제도에 대한 복수의 일환으로, 자신의 삶을 구현하는 하나의 수단인 것이다. 즉 기존의 제국주의 담론 혹은 친일 작품의 경우와 달리 최정희문학의 경우-전쟁협력은 근대적 개인 주체와 민족적 모성, 혹은 국가적 모성 담론과 충돌하지 않고, 오히려 개인 주체, 자아의 실현을 가능하게 해주고 확장시켜 주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모성의 희생, 여성성의 희생이라는 면모는 드러나지 않는다. 천황의 국가를 위해 싸우는 군인이 아니라 남자에게 버림받고 사회적으로 냉대, 차별받는 나 자신의 삶을 구제하기 위해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자 하는 것이다. 나 자신을 버린 남성, 국가에 대한 복수라는 궁극적 목적 측면에서 여타 친일문학의 모성 담론, 동원의 논리와 차별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국가와 민족을 위한 협력이 아니라 여성 자신의 삶을 실현시키기 위한 여성문학으로서의 존립의의를 보여주고 있다.

남성작가의 작품보다 훨씬 치밀한 구성과 완결성을 보이는 이유도 이러한 논리가 구체화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은 아닐까 싶다. 아이러니하게도 「야국초」는 ‘친일문학 중 드물게 여성의 정체성이 형상화가 잘된 작품’³²⁾이라고 평가받는 것은 이와 같이 일제의 동원 논리를 막연하게 이데올로기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로서 인간으로서 생존을 위해 지켜야 할 들국화처럼 아름답지만 강한 모성을 추구하게 된 내적 필연성이 긴밀하게 그려지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32) 장미경·김순전 「최정희일본어소설에나타난 ‘여성지식인’ 고찰-단편『靜寂記』, 『地脈』, 『野菊抄』를 중심으로」 (『日本語文學』 第42輯), p.188.

6. 결론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작가들의 친일 작품은 단지 작가가 여성이라고 해서 모두 여성성을 다룬다거나 여성해방을 지향했다고는 할 수 없다. 혹은 같은 여성성이라 하더라도 그 개념이나 여성해방의 추구방법은 작가별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임순득은 의식적으로 여성성을 다룬 문학을 배제하고 민족의 문제를 전경화함으로써 비협력의 저항의 논리를 구현하고 있다. 또한 최정희와 더불어 대표적 친일 작가로 평가받는 장덕조는 여성성을 서구의 개인주의, 자유주의의 산물로 부정함으로써 전쟁수행이라는 남성 중심의 세계에 동화되고자 하는 욕망을 보이고 있다. 그러한 양상은 모윤숙, 노천명의 시에서는 더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드러나서, 이들 시에서 여성성은 그 자체가 부정되어야 할 것, 모성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되어야 할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즉 저항이었던 협력이었던 여성작가들의 친일작품에서 여성성은 말살, 혹은 억압하는 형태로 친일 동화정책의 논리를 대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들 여성 작가들에게 남성중심주의적 가부장제, 국가이데올로기 등이 여성성을 억압 속박하고 있다는 사실은 은폐되거나 망각되고 있는 것이다.

그에 비해 최정희의 친일문학에서는 지금까지 검토한 바와 같이 연애감정(낭만), 미, 모성 등은 여성성이 처음부터 부정되거나 배제되지 않는다. 그것은 역사적, 상대적 개념으로 정의되고, 전쟁을 수행하는 당시의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 맞게 재규정됨으로써 동원 이데올로기와 결합되고 있다. 즉 최정희의 친일작품에서 여성성과 전쟁이데올로기의 결합 양상은 국가와 민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성으로서 인간으로서 한 개인의 삶과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여성해방을 지향점으로 하고 있는 점이 다른 여성 친일작품과 구별되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1940년대 대표적 여성친일 작가로 비판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맥시리즈’이래 전쟁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여류작가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견지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도 할 수 있다.

<參考文獻>

- 김동리(1947) 「여류작가의 회고와 전망」 『문화』 .p.47.
- 김복순(2008) 「‘범주 우선성’의 문제와 최정희의 식민지 시기 소설」 『상허학보』 , Vol.-NaN23. p.258.
- 김연숙(2004년 여름) 「식민지 근대소설에 나타난 母性談論 연구」 『어문연구』 제32권 제2호, p.388.
- 김윤식(1973) 「인형의식의 파멸-여성과 문학」 『한국문학사논고』 법문사.p.246.
- 노천명(1942.3월 4일) 「부인 근로대」 『每日新報』 .
- _____ (1942.8월5일) 「님의 부르심을 받들고서」 『每日新報』 .
- 모윤숙(1942.1) 「동방의 여인들」 『新時代』 , p.157.
- 방민호(2007) 「일제말기 문학인들의 대일협력 유형과 의미」 『한국현대문학연구』 , Vol.22.p.241.
- 심진경(2006) 「최정희 문학의 여성성-여성작가로 산다는 것-」 『한국근대문학연구』 , Vol.7 No.1.p.96.
- 우에노 지즈코(1999) 『내셔널리즘과 젠더』 이선이 옮김(박종철출판사).p.47.
- 이상경(2003. 봄) 「식민지에서의 여성과 민족의 문제」 (실천문학, 80).,pp.79-81.
- _____ (2004) 「1930년대 신여성과 여성작가의 계보연구」 (앞의 논문,2004). pp.261~265.
- 이선옥(2003.12) 「여성해방의 기대와 전쟁동원의 논리 -여성의 친일작품과 논설-」 『친일문학의 내적 논리』 역락.p.240.
- 이재선(1979) 『한국현대소설사』 (홍성사). p.47.
- 장덕조(2001) 「行路」 (大村益夫 『近代朝鮮文學日本語作品集, 1939-1945, 創作篇』 綠蔭書房,p.103.
- 장미경 · 김순전 「최정희일본어소설에나타난 ‘여성지식인’ 고찰-단편 『靜寂記』 『地脈』 『野菊抄』를 중심으로」 (『日本語文學』 第42輯),p.188.
- 조병무(1982) 『탑돌이』 『범우소설문고』 , 범우출판사, p.246.
- 최정희(2001) 「幻の兵士」 (大村益夫 『近代朝鮮文學日本語作品集, 1939-1945, 創作篇』 綠蔭書房.p. 296.
- 호사카 유지(2002) 『일본제국주의의 민족동화정책 분석』 제이앤씨.p.216.
- 東条英機(1943.10.28) 第三臨時衆議院予算總會 『朝日新聞』 .
- 早川紀代(2005) 『植民地と戦争責任-戦争・暴力と女性3』 吉川弘文館.,p.91.

접 수 일: 12월 31일

심사완료: 1월 26일

게재결정: 1월 28일

<要旨>

『植民地時代の朝鮮人女性作家 崔貞熙の文学に現れた女性性と戦争動員』

本論文では植民地時期日本帝国の動員政策と女性作家達の親日の方法を検討し、女性作家としての崔貞熙の文学の女性性と戦争動員論理との結合の在り方について追究した。

その結果、女性作家達の親日作品は、ただ作家が女性だとして全てが女性性を預かったり女性解放を志したとは言えないし、或いは女性性を預かっていても、その概念や女性解放の追究の方法は作家によって違っている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第一任淳得は意識的に文学の中で女性性を排除し、民族解放の問題を全景化することによって非協力の抵抗を具現している。また崔貞熙とともに代表的な女性親日作家として評価されている張徳祚は、女性性を西欧の個人主義・自由主義の産物として否定している。そのような有り様は毛允淑、盧天命等の詩の場合においてはもっと露骨的に露になっており、女性性そのものは否定されるべきものとして、それから母性は国家と民族、東洋平和のために犠牲されるべきものとして描かれている。或いは戦争遂行という男性中心の世界に同化しようとする欲望さえ露にしている。即ち抵抗であれ協力であれ、女性作家達の日本語作品において女性性は抹殺、或いは抑圧する形で日本帝国の同化政策の論理に従っていることが分かった。ジェンダー批評家達の指摘している女性解放への期待は見えない。そればかりかではなく、むしろ男性中心主義的家父長制や国家イデオロギーなどが女性性を抑圧していることは隠蔽・忘却されているのである。

それとは違って崔貞熙の親日文学においては、恋愛感情(ロマン)、美、母性などの女性性は否定され排除されるべきものではなく、歴史的・相対的概念である。それで女性性は戦争を遂行する歴史的・社会的コンテクストに合わせて再規定されることによって動員イデオロギーと結合されていく。すなわち、崔貞熙の親日作品に於て女性性は国家や民族のために否定、犠牲、排除されるべきものではなく、女性として或いは人間として自我を実現するために守らなければならないものとして描かれている。それが他の女性親日作家達の作品と崔貞熙の文学とが違っている所であると言える。